

세입 3조 확대·채무 25% 감축 지자체 재정 '숨통' 트이나

안행부 업무보고, 지방소비세 비율 10%로 확대

지방소비세를 부가가치세의 10%로 확대하고 독립세로 전환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연간 세입을 3조 1000억원 확대하기로 했다. 또 지방채무는 2017년까지 21조원으로 25% 감축하는 구조조정을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한다.

안행부는 지난 5일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3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연간 지방세입을 3조1000억원 확대, 현재 53조7000억원에 이르는 지방세입을 5.7% 늘리기로 했다.

안행부는 우선 부가가치세에서 이양되는 지방소비세 비율을 현행 5%에서 10%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경우 지방소비세는 현재 2조 9000억원에서 2조2000억원 늘어난다.

안행부 관계자는 "지방소비세 비율을 10%로 올리는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며 "다른 이 전제된 감축을 요구하는 상황이기에 때문에 2조2000억원이 모두 순증할지는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안행부는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한다는 방침도 정했다. 현재 지방소득세는 소득·법인세액의 10%다. 부가세인 지방소득세가 독립세가 되면 국세인 법인·소득세 감면이나 세율 인하에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안행부 측은 설명했다.

안행부는 나아가 지자체별로 분산 관리되고 있는 지방세 과세자료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 연간 약 7000억원의 세입을 확충할 계획이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전국 244개 지자체가 국세청·국도교통부·환경부 등의 지방세 과세자료를 윈스(WINS)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3933억원의 세수증대와 2634억원의 세외수입 증대, 363억원의 납세편의 증진, 47억원의 행정비용 절감 효과를 낸다는 게 안행부의 설명이다.

안행부는 또 현재 15조1000억원에 달하는 지방세 비과세 감면비율을 22.5%에서 국세 수준인 15%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세입이 연간 2000억원씩 5년간 최대 1조2000억원 가량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안행부는 추산했다.

반면에, 재작년 기준 28조원에 달하는 지자체 채무는 올해 27조원, 4년 후인 2017년에는 21조원까지 25%

감축하는 게 안행부의 목표다.

안행부는 각 지자체에 이 같은 내용의 지방채무 중기재무관리계획을 받아 목표달성 여부를 정기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행사나 축제, 청사신축 등 주민관심사업에 대한 지자체별 원가 정보를 공개해 주민감시를 통한 예산 통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련 법령에 근거를 마련, 내년부터 지자체별 결산을 할 때 원가회계를 적용해 분석한 결과를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사회 안전도 강화된다. 안행부는 올해 말까지 생활안전지도 구축정보화전략계획(ISP)을 세워 ▲소방방재청 재난정보 ▲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 정보 ▲국도교통부 건설 안전 정보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 안전 정보를 통합한 안전정보 통합관리 시스템을 만들기로 했다.

아울러 지역별 재난·안전사고·범죄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한 생활안전 지도를 구축해 2015년 이후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안전정책조정회의가 신설된다. 학교폭력·성폭력·가정폭력·불량식품 등 4대 사회악별로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조정회의에서 추진 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당 5·4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에 출마하는 강기정·김한길·신계륜·이용섭 의원(왼쪽부터 가나다순)이 7일 국회 정론관에서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전당대회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김한길 vs 광주·전남 출신 3인

민주당 당권경쟁... 범주류 주자들 '김한길 대세론' 맞서 단일화 이뤄낼지 촉각

신계륜 의원의 출마 선언으로 민주당 통합당의 당권 경쟁 구도가 4파전으로 짜여졌다.

특히, 당권 주자 가운데 김한길 의원을 제외하고 합류 출신의 신계륜(성북 을·4선), 강기정(북구 갑·3선), 이용섭(광산 을·재선) 의원 등 3명이 모두 광주·전남지역 출신이라는 점에서 지역 정치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 통합당 신계륜 의원은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0월 재보선과 내년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 상머슴이 돼 2017년 차기 대선까지 가는 '혁신 대장정'의 주춧돌을 깔겠다"며 5·4 전당 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이어 "대표가 되면 민주적이

고 강력한 리더십을 세우겠다. 일체의 계파활동을 타파하고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리더십을 구축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더 물러설 곳도, 피할 것도 없다. 죽어서 살겠다는 각오로 뿌리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486의 망령"으로 불려온 신 의원은 1992년 14대 총선에서 서울 성북 을에 당선되면서 정치권에 입문, 지난 2002년 대선 과정에서 노무현-정몽준 후보 간의 단일화 협상을 맡았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비서실장을 지냈다. 지난 대선에서는 문재인 전 후보의 특보대장을 역임했으며, 지난 연말 원내대표 경선에 나섰다 박기춘 원내대표에게 패했다. 이에 따라, 비주류의 김한길 의원에 맞서 범주류로 평가받은 신계륜,

강기정, 이용섭 의원 등 4명이 당권 레이스를 펼치게 됐다. 유력한 당권 주자로 거론됐던 주미애 의원은 지난 5일 불출마 입장을 밝혔다.

이번 당권 경쟁 구도의 가장 큰 변수는 범주류 주자들의 '단일화'가 꼽히고 있다. 하지만 범주류 주자들 간의 이견으로 12일 실시되는 컷-오프(예비경선) 이전에 단일화가 이뤄지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김한길 대세론을 흔들수 있는 유일한 카드는 단일화라는 점에서 컷-오프 이후, 극적인 성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이와 함께, 광주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강기정, 이용섭 의원 가운데 누가 컷-오프를 통과하느냐도 관심사다.

두 사람 모두 차기 지방선거에서 광주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는 점에서 컷-오프에서 탈락한 주자는 상당한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민주당당은 지난 5일 비대위와 당무위를 잇달아 개최,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5·4 전당대회에서 한 국노총에게 배정하는 정책대위원을 지난해 6·9 전대의 절반 수준인 1000명으로 확정했다. 통합 과정에 참여한 시민단체 등에는 200여명의 정책대위원을 배정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5·4 전대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의원은 단연직 2500여명, 선출직 7700여명, 정책대위원 1200여명 등으로 구성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빛의만평 - 김중두

전쟁위협... 처북 특사론

모처럼 밥값(?) 줘 하는가 보다

내 손 안에 신문 나의 경쟁력

박근혜 대통령이 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57회 신문의 날 기념 축하연에서 건배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우원길 한국방송협회장, 김재호 한국신문협회장, 박 대통령, 송희영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장, 박종률 한국기자협회장, 문희상 민주당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연합뉴스

"신문은 지식과 콘텐츠의 보고"

박대통령, 신문의 날 축하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57회 신문의 날 기념식에 참석, 축하를 통해 "창의형 인재를 길러내고 통섭과 융합의 꽃을 피워내려면 아무래도 지식과 콘텐츠의 보고인 신문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신문이 21세기 지식산업의 견인차 역할을 잘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지금 신문은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맞고 있다. 이미 많은 신문사에서 활자매체 영역을 넘어 뉴미디어와 결합해 새로운 길

을 열고 있다"며 "여러분이 매일 소중한 뉴미디어를 통해 사회에 제공될 때 국민 삶의 폭이 넓어지고, 지식의 풍요로움을 느끼게 될 것이라 생각하고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박 대통령은 제68회 식목일을 맞아 경기도 포천의 국립수목원을 방문, 임업인과 산림청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전날 세종시와 충남도청 방문에 이어 이를 연속 지방 방문이었다. 박 대통령은 수목원 본관 앞에서 우리나라에서 만 자라는 특산종인 구상나무를 식수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http://art.kjmedia.co.kr | 062. 220. 0541

예술 꿈나무들의 큰잔치

58 호남예술제

1956-2013 제58회 호남예술제

전통의 종합예술대전·전국대회

2013. 4. 24 | 수 | ~ 5. 24 | 금 |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남부대학교
금호패밀리랜드 및 우치동물원

신청기간

음악·무용·국악부분 2013. 4. 10 | 수 | ~ 4. 17 | 수 |

미술·작문부분 2013. 5. 13 | 월 | ~ 5. 16 | 목 |

주최 | 61 광주일보 | 협찬 | SAMSUNG 삼성생명 |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 광주광역시 | 전라남도 | 광주광역시청 | 전라남도교육청